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JBLI Jeonbuk Labor Economic Trends Briefing

김 연 탁 (전북노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본 브리핑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JBLI LETB 2021.5. | No.2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

발행일 | 2021.5.2.

발행인 | 염경석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7 3층

전 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mailto:kctu.jbli@gmail.com)

ISSN | 2765 - 5490

## 목차

<b>1. 전북지역 고용·노동현황(3월)</b>	<b>4</b>
<b>2. 고용 분석</b>	<b>5</b>
1) 요약	5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6
<b>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b>	<b>8</b>
<b>4. 산업 경기 현황</b>	<b>11</b>
1) 제조업	11
2) 비제조업	13
3) 수출입통계	18
<b>5. 가계동향</b>	<b>20</b>
1) 소비자심리지수(CCSI)	20
2) 소비자동향지수(CSI)	20
<b>6. 전북지역 경제력 지수 및 균형발전현황(요약)</b>	<b>21</b>
1) 검토배경	21
2) 경제력 지수	21
3) 부문별 균형발전 현황	
<b>7. 분석 및 시사점</b>	
1) 보고서 요약	24
2) 이후의 대안	25

# 1. 전북지역 고용·노동 현황(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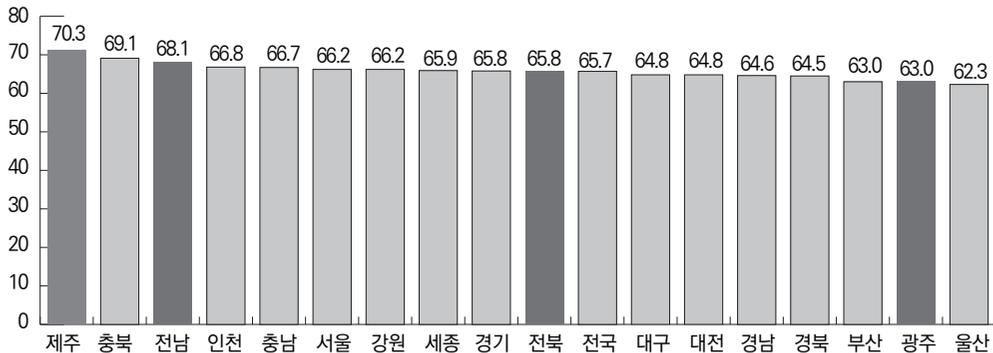
## 〈 취업자 현황 〉

(단위: 천명)

		3월 현황/전년동월대비 증감				2월 현황/전월대비 증감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 체		26,923	▲314	947	▲40	26,365	▲558	928	▲19
성별	남성	15,417	▲135	539	▲21	15,149	▲268	534	▲ 5
	여성	11,506	▲179	408	▲19	11,215	▲291	394	▲14
연령별	15~29세	3,818	▲148	104	▲19	3,715	▲103	101	▲ 3
	30대	5,238	▼170	145	▲ 0	5,263	▼ 25	146	▼ 1
	40대	6,291	▼ 85	203	▼ 5	6,260	▲ 31	204	▼ 1
	50대	6,320	▲ 13	224	▲ 1	6,219	▲101	217	▲ 7
	60세 이상	5,256	▲408	272	▲26	4,908	▲348	261	▲11
산업별	농림어업	1,373	▼ 26	168	▼ 7	1,226	▲147	160	▲ 8
	제조업	4,412	▼ 11	125	▼ 3	4,418	▼ 6	122	▲ 3
	건설업	2,052	▲ 92	78	▲ 7	1,979	▲ 73	76	▲ 2
	도소매음식숙박업	5,467	▼196	163	▲13	5,422	▲ 45	156	▲ 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312	▲334	324	▲22	10,065	▲247	327	▼ 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295	▲125	87	▲ 8	3,240	▲ 55	87	-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5,456	▼ 81	258	▲ 2	5,372	▲ 84	255	▲ 3
	무급가족종사자	956	▼ 60	67	▼ 1	915	▲ 41	63	▲ 4
	상용근로자	14,769	▲208	433	▲31	14,678	▲ 91	427	▲ 6
	임시근로자	4,490	▲206	146	▲14	4,190	▲300	146	-
	일용근로자	1,252	▲ 41	43	▼ 5	1,210	▲ 42	39	▲ 4

## 〈 시도별 15~64세 고용률 〉

(3월 기준, 높은순, %)



## 2. 고용 분석

### 1) 요약

- 3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1,55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감소하고, 전월 대비 보합세임.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임. 경제활동인구는 966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4천 명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6천 명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는 5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 명 감소, 전월 대비 15천 명 감소함.
- 3월 기준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 명, 전월대비 19천 명 증가하였음. 실업자는 1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전월대비 3천 명 감소함. 고용률<sup>1)</sup>은 59.7%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전월 대비 1.2%p 상승하였음. 실업률<sup>2)</sup>은 2.0%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전월 대비 0.3%p 낮아짐.
- 3월 기준 전북지역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5.8%로 전국 평균(65.7%)을 상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9%p, 전월 대비 0.7%p 상승함. 하지만, 이 수치는 농업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전북지역의 열악한 고용현황을 왜곡하고 있음.
- 2021년 1/4분기 기준 전북지역의 청년고용률(15~29세)은 34.4%로 전년 동분기 대비 4.1%p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함. 이 수치는 전남(34.0%, 5.3%p 하락)보다는 약간 높지만, 전국 평균 42.1%(전년동분기 대비 0.5%p 하락)은 물론, 광주(38.6%, 2.1%p 하락), 제주(41.4%, 0.5%p 상승)보다 낮은 상태임.
-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북지역 고용현황은 성별로는 남, 여 모두 증가, 연령별로는 30~59세가 감소 또는 증가율이 미비하고,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증가함,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감소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대폭 증가함.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임시 노동자가 증가한 데 반해, 일용노동자가 감소하였음.
- 3월 기준, 전월 대비 전북지역 고용현황은 성별로는 남,여 취업자 수 증가, 연령별로는 30~49세 취업자 수 감소, 50세 이상 취업자 수 대폭 증가함.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

1)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전 산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함.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일용 노동자가 증가한 반면, 임시노동자는 포함세임.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용이 증가한 이유는 29세 이하,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주된 원인이 있음. 이는 29세 이하 서비스업종 취업자 증가와 60세 이상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종사자의 증가로 보임.
-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용이 증가한 이유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상용·일용노동자가 증가한 수치를 보았을 때, 신규 창업의 증가와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의 결과로 보임.
- 전북지역 고용현황이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통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농도로서의 특징과 산업의 후진성과 열악한 고용현실(중소영세 및 자영업 취업자 비율 높음), 작은 도세(인구 및 경제지분율 3~3.5% 수준)로 인해 감춰진 현상일 뿐, 위기의 질은 훨씬 심각함.

##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 (1) 성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314천 명 증가함. 남성(135천명)과 여성(179천명) 모두 증가함. 전북지역은 40천 명 증가함, 남성은 21천 명, 여성은 19천 명 각각 증가함. 전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558천 명 증가함. 남성은 268천 명, 여성은 291천 명 증가함. 전북 지역은 19천 명(남성 5천 명, 여성 14천 명) 증가함.
- 전북지역 성별 고용율<sup>3)</sup>은 전년 동월 대비 남성은 70.5%로 2.7%p 상승함, 여성은 51.6%로 2.5%p 상승했음. 전월과 비교하면, 남성은 0.6%p, 여성은 1.8%p 각각 상승함.

### (2) 연령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30~49세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지역의 경우에도 30~49세 이하에서 담보 또는 감소하였음. 전국과 지역 모두 60세 이상 취업자

3) 15세 이상 성별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 전월 대비 전국 통계는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음. 지역의 경우에는 30~49세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노인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348천 명 증가)한 이유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당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시 영향으로 보임.

### (3) 산업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는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수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6천 명), 제조업(-11천 명), 도소매음식숙박업(-196천 명)이 감소하였음. 증가 추세이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점이 이례적임.
- 전년 동월 대비 전북지역은 농림어업(-7천 명)과 제조업(-1천 명)이 감소하였으나, 건설업(+7천 명), 도소매음식숙박업(+13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2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천 명)이 증가하였음.
- 전월 대비 전국 현황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전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특히, 농림어업(+147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7천 명)이 대폭 증가함. 전북지역의 경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하였고, 전 산업의 취업자 수가 담보 또는 증가함. 특히, 농림어업(+8천 명)과 도소매음식숙박업(+7천 명)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

### (4) 종사상 지위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8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60천 명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은 자영업자가 2천 명 증가한 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는 1천 명 감소하였음.
- 전월 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는 8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1천 명 각각 증가함. 전북지역의 경우는 자영업자 3천 명, 무급가족종사자 4천명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적으로 퇴직 등 취업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의 신규 창업 또는 귀농, 특수고용직이 증가한 결과로 보임.
- 2021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0.26%로 전월 대비 0.12%p 감소함, 무급가족종사자는 3.55%로 0.08%p 증가함.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27.24%(전월 대비 0.24%p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7.07%(전월 대비 0.28%p 증가)를

- 차지하고 있음. 전북지역이 전국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6.98%p, 무급가족종사자는 3.52%p 더 높음. 전북지역의 자영업 종사자(무급포함) 비율은 34.31%를 차지하고 있음. 이 수치는 미국(15%)에 비해 약 2~3배, 유럽(7~10%)에 비해 3.5~5배가 많은 수치임.
-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또는 퇴출)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직종(플랫폼 등)에 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전북지역의 고용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자영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수입규모(평균, 월 100만원 수준)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로서의 사회적 지원과 구조적인 해결이 요구됨. 중장기적으로 공공 부문 고용정책의 확대를 통해 임금노동자로 수용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
  - 전년 동월 대비 임금노동자 현황은 전국적으로 상용노동자가 208천 명, 임시노동자 206천 명, 일용노동자 41천 명이 증가하였음. 전북지역의 경우는 상용 31천 명, 임시 14천 명이 증가한 반면, 일용직 노동자가 5천 명 감소하였음.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상용 91천 명, 임시 300천 명, 일용 42천 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지역은 상용 6천 명, 일용 4천 명이 증가한데 반해, 임시직 노동자는 감소세임.

###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019	2020
전국	전체	18,195	18,743	19,230	19,546	19,806	20,083	20,440	20,332
	상용	11,713	12,156	12,588	12,974	13,334	13,772	14,216	14,521
		64.3	64.8	65.3	66.4	67.3	68.6	69.5	71.4
	임시	4,892	5,032	5,086	5,104	4,973	4,851	4,795	4,483
		26.9	26.8	26.4	26.1	25.1	24.2	23.5	22.1
	일용	1,590	1,555	1,556	1,469	1,499	1,460	1,429	1,328
	9.1	8.4	8.3	7.5	7.6	7.2	7.0	6.5	
전북	전체	565	571	576	575	577	605	609	603
	상용	347	350	346	366	368	386	400	412
		61.4	61.3	60.0	63.6	63.8	63.8	65.7	68.3
	임시	150	156	162	154	157	155	149	141
		26.5	27.3	28.1	26.8	27.2	25.6	24.5	23.4
	일용	68	65	67	54	52	64	63	50
	12.1	11.4	11.9	9.6	9.0	10.6	9.8	8.3	

- 전국 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108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305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노동자가 312천 명, 일용노동자가 108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임시노동자는 2016년 5,104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임. 일용노동자 역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임. 임시노동자가 감소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상시업무에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노동자들의 신규 채용시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계약 해지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함.
- 지역 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6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12천 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 노동자는 8천 명, 일용직 노동자는 13천 명 감소하였음.

(단위 : 천명)

구 분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전체	20,376	20,393	20,056	19,919	20,244	20,411	20,470	20,446	20,376	20,441	20,678	20,174	19,617	20,078	20,511
	상용	14,586	14,596	14,561	14,401	14,463	14,510	14,528	14,570	14,486	14,448	14,528	14,580	14,622	14,678	14,769
		71.6	71.6	72.6	72.3	71.4	71.1	71.0	71.2	71.1	70.7	70.3	72.3	74.5	73.1	72.0
	임시	4,423	4,507	4,284	4,288	4,453	4,506	4,523	4,539	4,553	4,624	4,738	4,355	3,860	4,190	4,490
		21.7	22.1	21.4	21.5	22.0	22.1	22.1	22.2	22.3	22.6	22.9	21.6	19.7	20.9	21.9
	일용	1,367	1,290	1,211	1,230	1,328	1,395	1,419	1,337	1,337	1,369	1,412	1,239	1,135	1,210	1,252
6.7		6.3	6.0	6.2	6.6	6.8	6.9	6.6	6.8	6.7	6.8	6.1	5.8	6.0	6.1	
전북	전체	600	593	582	585	604	610	611	610	610	608	629	600	579	612	622
	상용	408	403	403	406	411	416	412	412	413	415	421	423	424	427	433
		68.0	67.9	69.2	69.4	68.0	68.2	67.4	67.5	67.7	68.3	66.9	70.5	73.2	69.8	69.6
	임시	137	139	132	130	142	141	144	146	146	145	158	134	112	146	146
		22.8	23.4	22.7	22.2	23.5	23.1	23.6	23.9	23.9	23.8	25.1	22.3	19.3	23.9	23.5
	일용	55	51	47	49	51	53	55	52	51	48	50	43	43	39	43
9.2		8.7	8.1	8.4	8.5	8.7	9.0	8.5	8.4	7.9	7.9	7.2	7.5	6.3	6.9	

- 전북지역 상용노동자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1.3-5.3%p 낮음.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2.4%p 낮음.
- 임시노동자가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전국 수준보다 떨어졌으나, 10월부터 다시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다가 12월 들어 (임시직노동자의 감소로 인해) 격차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21년 1월 들어 전국 수준보다 떨어졌으나, 2월 들어 다시 전국 수준을 상회함. 이는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9~10개월 품수계약의 결과로 보임

- 일용노동자 비중을 보면, 2021년 2월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0.8%p 더 높음.
- 전반적으로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전국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음. 이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냄.
- 아래 <보론>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고용지수는 개선되었음. 전월에 비해 19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36시간 미만 노동자가 20천명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노동자는 46천명 증가하였음. 일시휴직자는 7천명이 감소하였음. 주당평균 취업시간은 0.9시간이 증가하였음. 수치로만 보면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일시 휴직자가 정규직이고 36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는 점, 둘째 일시휴직자가 퇴직하지 않고 모두 복귀했다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상용노동자 증가(6천 명)와 일시휴직자(7천 명)를 합쳐도 13천 명에 그침. 일용노동자(4천 명)들을 모두 36시간 이상 노동자로 분류하더라도 신규 증가자는 17천 명에 불과함.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나 농림어업종사자)인 것으로 보이며, 임금 등 근로조건 호전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보론> 전북지역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시간, %)

구 분	2019		2020												2021			전월 대비 증감률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 체	942	927	907	904	907	913	931	944	946	943	951	956	966	917	893	928	947	19
36시간 미만	209	249	253	240	217	300	213	210	240	249	223	217	257	252	255	275	255	-20
36시간 이상	727	670	633	627	638	571	699	719	694	679	715	726	698	652	625	638	684	46
일시 휴직	6	8	21	38	52	42	19	15	13	14	13	14	11	13	13	15	8	-7
주당평균 취업시간	40.0	38.5	37.5	36.9	37.3	36.9	39.1	39.7	38.8	38.5	39.1	39.7	38.5	37.6	37.2	36.8	38.2	0.9

## 4. 산업 경기 현황

### 1) 제조업

#### (1)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4월)

- 2021년 4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sup>4)</sup>는 87으로 전월 대비 11p 상승. 5월 업황 전망 BSI는 86으로 전월 대비 7p 상승, 전국의 경우 4월 실적(96)은 7p 상승, 5월 전망(98)도 7p 상승.

	장기 평균 <sup>1)</sup>	2019		2020												2021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업황 <sup>2)</sup>	74 (79)	64 (63)	62 (58)	63 (60)	57 (67)	58 (62)	51 (60)	52 (47)	45 (52)	43 (47)	51 (43)	57 (54)	63 (59)	69 (67)	66 (70)	67 (66)	72 (67)	76 (78)	87 (79)	86 (86)	+11 (+7)
<전국>	78 (81)	74 (72)	74 (71)	76 (73)	65 (77)	56 (69)	52 (54)	49 (90)	51 (49)	59 (51)	66 (61)	68 (68)	79 (76)	85 (81)	82 (81)	85 (77)	82 (81)	89 (85)	96 (91)	98 (98)	+7 (+7)

주 :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 4월 중 실적은 111로 전월 대비 16p 상승, 5월 전망(110)은 전월 대비 7p 상승.
- 재산성 BSI: 4월 중 실적은 90으로 전월 대비 12p 상승, 5월 전망(91)도 전월 대비 11p 상승.
- 자금사정 BSI: 4월 중 실적은 85로 전월 대비 11p 상승, 5월 전망(87)은 전월 대비 9p 상승.
- 4월 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5.7%), 원자재 가격 상승(22.4%), 불확실한 경제상황(15.7%)순으로 나타남. 전월과 비교시 불확실한 경제상황(20.9%→15.7%), 내수부진(28.6%→25.7%)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15.0%→22.4%), 인력난, 인건비 상승(6.2%→9.1%), 자금부족(6.3%→7.5%) 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

4)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수로서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구 분	2019		2020												2021					전월 대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 대비 비교	매출 <sup>1)</sup>	75 (72)	76 (74)	69 (73)	69 (76)	70 (74)	63 (73)	56 (58)	53 (59)	51 (53)	56 (52)	65 (59)	69 (71)	72 (71)	78 (77)	81 (74)	87 (83)	95 (91)	111 (103)	(110)	+16 (+7)
	생산 <sup>1)</sup>	78 (80)	77 (80)	76 (79)	73 (83)	74 (81)	66 (77)	62 (64)	59 (64)	55 (59)	64 (60)	72 (68)	77 (74)	75 (78)	84 (77)	82 (83)	85 (83)	99 (96)	106 (102)	(106)	+7 (+4)
	신규수주 <sup>1)</sup>	77 (73)	76 (80)	76 (72)	66 (81)	72 (73)	63 (75)	58 (60)	58 (61)	57 (57)	61 (58)	70 (68)	76 (71)	73 (78)	82 (75)	84 (81)	82 (87)	95 (91)	102 (101)	(103)	+7 (+2)
	가동률 <sup>3)</sup>	73 (75)	74 (74)	72 (72)	75 (78)	71 (79)	65 (73)	60 (62)	56 (62)	60 (55)	64 (62)	73 (68)	74 (76)	80 (77)	85 (82)	84 (84)	83 (85)	98 (93)	107 (103)	(107)	+9 (+4)
전월 비교	채산성 <sup>5)</sup>	84 (81)	81 (86)	80 (79)	74 (82)	72 (76)	69 (71)	72 (65)	71 (70)	72 (71)	77 (71)	78 (80)	75 (80)	83 (78)	81 (83)	81 (82)	79 (82)	78 (83)	90 (80)	(91)	+12 (+11)
	원자재 구입가격 <sup>3)</sup>	106 (110)	110 (107)	112 (109)	117 (113)	113 (114)	105 (112)	103 (102)	105 (106)	111 (104)	115 (108)	117 (113)	115 (116)	117 (114)	121 (119)	134 (124)	140 (132)	148 (136)	149 (142)	(146)	+1 (+4)
	제품판매 가격 <sup>3)</sup>	88 (89)	88 (89)	90 (86)	90 (91)	87 (88)	83 (84)	79 (81)	82 (80)	89 (80)	90 (83)	94 (91)	93 (95)	100 (95)	98 (99)	101 (100)	101 (102)	108 (101)	112 (108)	(111)	+4 (+3)
	자금사정 <sup>5)</sup>	75 (77)	79 (73)	73 (75)	70 (76)	64 (70)	62 (65)	65 (60)	63 (64)	69 (60)	65 (67)	70 (68)	71 (70)	75 (73)	79 (77)	77 (75)	75 (79)	74 (78)	85 (78)	(87)	+11 (+9)
수준 판단	제품재고 수준 <sup>2)</sup>	107 (111)	110 (107)	110 (105)	112 (110)	113 (113)	107 (112)	109 (111)	113 (112)	108 (113)	102 (109)	108 (102)	105 (106)	99 (106)	103 (100)	99 (101)	100 (98)	95 (99)	(95)	-5 (-4)	
	생산설비 수준 <sup>2)</sup>	108 (107)	107 (108)	108 (108)	109 (108)	109 (108)	113 (109)	110 (115)	116 (111)	116 (114)	110 (109)	107 (108)	107 (108)	106 (107)	106 (105)	107 (107)	103 (107)	104 (105)	103 (105)	(103)	-1 (-2)
	설비투자 실행 <sup>4)</sup>	91 (92)	87 (92)	87 (87)	92 (88)	86 (94)	87 (85)	83 (84)	86 (87)	86 (85)	89 (87)	89 (89)	92 (92)	91 (92)	90 (92)	90 (91)	95 (91)	95 (95)	96 (96)	(94)	+1 (-2)
	인력사정 <sup>2)</sup>	94 (96)	94 (97)	95 (97)	101 (100)	101 (99)	100 (106)	100 (105)	108 (102)	107 (108)	101 (108)	100 (98)	98 (103)	98 (98)	94 (98)	99 (97)	94 (102)	89 (94)	89 (93)	(91)	- (-2)

- 주 :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 2)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 3) 「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
- 4) 「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 5)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 6) (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2) 광공업<sup>5)</sup> 생산동향(3월)

- 3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 전월 대비 2.0% 감소함(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 전월 대비 1.9% 감소,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6.9%, 전월 대

5) 산업분류에 따르면 대부분류로 광공업이고 중분류로 하면, 광업(B)과 제조업(C)로 나뉜다. 실질적으로 광업에 의한 생산이 거의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봐도 무하다.

비 1.4% 각각 증가)

- 3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금속가공, 비금속광물광업, 의약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화학제품, 음료 등이 증가함.

(2015=100.%/p: 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p	1/4	2/4	3/4	4/4p	1/4p
지수	원 계 열	97.1	91.2	90.9	92.8	87.3	92.5	86.0	88.0	83.1	83.0	88.6	90.7
	계절조정계열	-	-	91.4	90.6	91.1	89.7	-	87.7	82.6	84.6	87.1	91.1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2.5	-6.1	-7.4	-6.4	-5.5	-5.8	-5.7	-3.2	-10.5	-4.9	-4.7	2.6
	전 월 ( 기 ) 비	-	-	-4.3	0.0	0.1	-1.5	-	-2.2	-5.8	2.4	1.4	4.6

구 분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p	2p	3p
지수	원 계 열	87.9	81.8	94.2	88.5	79.5	81.3	84.0	74.1	90.8	86.2	87.7	91.1	90.8	83.3	98.2
	계절조정계열	91.1	82.6	89.3	90.3	77.5	80.0	82.5	80.0	91.2	88.2	86.5	87.0	87.2	94.0	92.2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8.8	1.9	-1.8	-6.8	-16.1	-6.7	-9.8	-11.3	6.4	-8.5	-5.5	-0.8	2.8	1.5	3.7
	전 월 ( 기 ) 비	2.1	-9.3	8.1	1.1	-14.2	3.2	3.1	-3.0	14.0	-3.3	-1.6	0.6	0.2	7.8	-2.0

● 전년 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생산)

기 계 장 비	20.6%	농업용트랙터, 플라스틱성형기, 금형
화 학 제 품	6.4%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계면활성제, 폴리에스터섬유
음 료	16.9%	맥주, 소주
금 속 가 공	-13.7%	육상금속구조물, 건축용금속공작물, 용접봉
비 금 속 광 물 광 업	-27.0%	쇄석, 모래
의 약 품	-7.8%	의약품

2) 비제조업

(1) 일반현황

- 4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64로 전월 대비 4p 상승, 5월 업황 전망 BSI는 66으로 전월 대비 7p 상승. 전국의 경우 4월 실적(82)은 5p 상승, 5월 전망(82)은 4p 상승.
- 4월 중 전북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 (16.4%), 불확실한 경제상황(16.0%), 내수부진(15.0%)순으로 나타남.

	장기 평균 <sup>1)</sup>	2020												2021					전월 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업황 <sup>2)</sup>	65 (70)	66 (62)	52 (67)	50 (57)	56 (52)	57 (55)	54 (58)	59 (54)	54 (56)	56 (56)	56 (58)	60 (56)	57 (59)	56 (54)	59 (59)	60 (66)	64 (59)	(66)	+4 (+7)
전국	74 (77)	73 (75)	64 (74)	53 (68)	50 (52)	56 (50)	60 (56)	65 (59)	66 (63)	62 (69)	69 (62)	73 (69)	68 (73)	70 (64)	72 (70)	77 (73)	82 (78)	(82)	+5 (+4)

주 :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 4월 중 실적은 68로 전월 대비 4p 상승, 5월 전망(72)은 전월 대비 5p 상승.
- 재산성 BSI: 4월 중 실적은 74로 전월 대비 3p 상승, 5월 전망(77)도 전월 대비 2p 상승.
- 자금사정 BSI: 4월 중 실적은 71로 전월보다 1p 하락, 5월 전망(75)는 전월 대비 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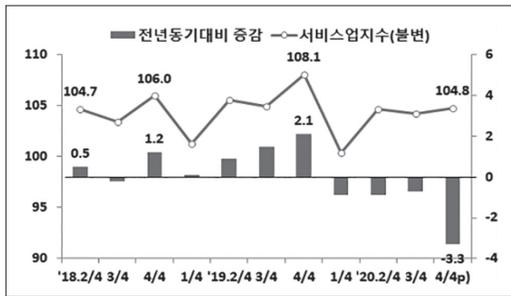
월	2020												2021					전월 대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매출 <sup>1)</sup>	70 (70)	56 (74)	51 (64)	56 (56)	56 (57)	53 (55)	56 (53)	53 (57)	58 (55)	56 (57)	62 (56)	61 (60)	57 (58)	61 (60)	64 (66)	68 (67)	(72)	+4 (+5)
재산성 <sup>2)</sup>	77 (76)	66 (79)	56 (70)	61 (62)	70 (62)	65 (67)	66 (64)	59 (64)	63 (63)	63 (63)	72 (62)	66 (69)	63 (60)	69 (65)	71 (73)	74 (75)	(77)	+3 (+2)
자금사정 <sup>2)</sup>	76 (72)	64 (78)	55 (66)	55 (59)	65 (57)	61 (61)	66 (58)	57 (61)	61 (59)	65 (59)	69 (63)	65 (68)	64 (60)	68 (65)	72 (69)	71 (71)	(75)	-1 (+4)
인력사정 <sup>3)</sup>	82 (82)	81 (85)	81 (82)	89 (84)	84 (88)	83 (85)	83 (83)	81 (82)	84 (82)	84 (82)	85 (86)	87 (85)	81 (84)	82 (81)	78 (83)	79 (79)	(81)	+1 (+2)

주 :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3) 현재 수준「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4) ( ) 내는 전망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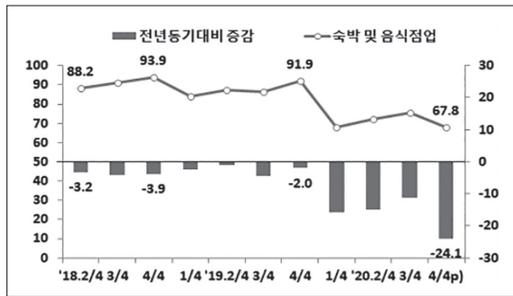
## (2) 서비스업

- 2020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4.8로 전년동기대비 3.3p 하락,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138.7-추정치)에서 가장 크게 상승(+18.8p)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67.8-추정치)에서 가장 크게 하락(-24.1p)

〈서비스업 생산지수(전년 동기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전년 동기 대비)〉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 3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sup>6)</sup>는 78.2로 전년 동월대비 6.1% 증가함.
- 음식료품, 화장품, 기타상품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가전제품, 신발·가방, 오락·취미·경기용품은 증가.

(2015=100, %/ P: 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p
원계열	93.0	86.3	89.5	82.5	88.1	85.2	82.8	79.7	79.7	86.5	85.2	84.4
전년동월(기)비	-3.6	-7.2	-5.8	-8.5	-8.1	-6.6	-4.1	-10.9	-3.4	-1.8	0.0	5.9

구 분	2019			2020												2021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p	2p	3p
원계열	80.3	86.5	88.8	100.4	65.0	73.7	76.1	84.1	78.4	79.7	84.5	95.2	85.1	83.1	87.5	87.5	87.5	78.2
전년동월(기)비	-8.2	-2.6	-8.8	7.0	-23.2	-18.3	-2.4	-4.8	-3.4	-2.7	-0.7	-2.3	6.0	-3.9	-1.5	-12.8	34.6	6.1

(3) 건설업

① 연도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액수

(연도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수주액	3,006,648	2,746,359	3,358,561	1,616,643	3,418,023	2,909,215	3,673,162	4,314,399	2,616,885	3,315,188
공종별	건축	1,730,185	1,949,981	1,514,818	950,232	2,157,153	2,114,379	1,902,504	1,802,489	2,309,107
	토목	1,276,463	796,378	1,843,743	666,411	1,260,870	794,836	1,770,658	2,511,910	1,006,081
발주자별	공공	1,269,293	1,071,735	854,889	598,788	1,462,663	1,026,814	1,560,865	2,266,867	1,137,655
	민간	1,688,229	1,626,911	2,464,688	903,057	1,899,537	1,805,097	2,097,077	2,016,806	1,474,160
국내외기관	민자	7,887	9,819	19,893	16,861	4,683	5,352	9,167	1,890	471
	민자	41,239	37,894	19,091	97,937	51,140	71,952	6,053	28,836	4,150

6)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 전국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의 월평균 판매액을 지수로 만든 것임. 100이 평균임.

- 2020년 건설수주액은 3조 3152억으로 2019년에 비해 약 6,983억이 증가함.
- 종별에서는 2019년에 비해 건축이 4,486억이 증가하였고, 토목이 2,497억이 증가함. 즉,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동산개발이 건설업의 호황을 이끌어다고 할 수 있음. 공공발주가 621억이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가 약 7,280억이 증가한 것에서도 나타남.

② 분기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액수

(분기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8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p)	
건설수주액	1,189,929	442,525	657,767	222,679	1,328,755	760,947	443,969	446,232	1,667,327	455,424	
공종별	건축	499,439	335,696	529,242	175,590	834,851	531,098	339,955	330,287	1,105,248	254,854
	토목	690,490	106,829	128,525	47,089	493,904	229,849	104,014	115,945	562,079	200,570
발주자별	공공	806,008	209,427	157,083	98,394	697,396	242,336	123,118	132,728	578,861	157,008
	민간	371,107	233,098	499,924	120,819	630,515	517,199	289,304	309,004	1,088,466	297,273
	국내 외국기관	728	0	581	339	0	311	54	106	0	174
	민자	12,086	0	179	3,127	844	1,101	31,493	4,394	0	889

- 2021년 1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추정)액은 4,554억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약 3,055억이 감소함.
- 전년 동분기 대비 공종별은 건축은 2,762억이 감소하였고, 토목은 292억이 감소함.
- 전년 동분기 대비 발주자별 건설동향은 공공이 853억이 감소하였고, 민간은 2,199억이 감소하였음.

③ 월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총액

(2019~21년 월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165,666	169,487	107,372	436,919	78,787	142,061	50,389	69,077	53,148	341,830	402,424	584,501
공종별	건축	126,455	141,956	67,285	426,123	48,164	54,955	42,927	45,594	318,586	259,826	256,439
	토목	39,211	27,531	40,087	10,796	30,623	87,106	7,462	23,483	16,203	23,244	142,598

구분		201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발주자별	공공	39,529	155,535	14,363	23,515	34,546	99,022	7,271	25,417	15,980	40,690	216,407	440,299
	민간	126,137	13,952	93,009	412,823	44,241	42,860	41,441	42,210	37,168	300,296	186,017	144,202
	국내외국기관	0	0	0	581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179	1,677	1,450	0	844	0	0

구분		202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263,783	445,473	51,691	100,728	90,719	252,522	110,096	169,768	166,368	434,239	449,510	783,578
전년동월대비		98,117	275,986	-55,681	-336,191	11,932	110,461	59,707	100,691	113,220	92,409	47,086	199,077
공종별	건축	198,408	306,153	26,537	60,986	81,303	197,666	77,572	129,167	123,548	380,595	210,100	514,553
	토목	65,375	139,320	25,154	39,742	9,416	54,856	32,524	40,601	42,820	53,664	239,410	269,025
발주자별	공공	72,391	138,315	31,630	44,756	14,748	63,614	35,370	44,819	52,539	67,300	207,920	303,641
	민간	191,167	306,057	19,975	55,949	44,447	188,908	73,453	121,731	113,820	366,939	241,590	479,937
	국내외국기관	225	0	86	23	31	0	0	106	0	0	0	0
	민자	0	1,101	0	0	31,493	0	1,273	3,112	9	0	0	0

구분		2021											
		01(p)	02(p)	03(p)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84,954	80,371	286,991									
전년동월대비		-178,829	-365,102	235,300									
공종별	건축	53,786	24,434	174,246									
	토목	31,168	55,937	112,745									
발주자별	공공	28,138	38,458	90,492									
	민간	56,816	41,774	196,325									
	국내외국기관	0	0	174									
	민자	0	169	0									

- 1월과 2월에 건설수주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3월에는 증가하였음
- 공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건축은 1,477억, 토목은 876억이 증가하였음.
- 발주자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공공은 588억, 민간은 1,763억이 증가하였음.

### 3) 수출입통계

#### (1) 전국 통계

(단위:백만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19	금액	46,169	39,482	47,003	48,781	45,704	44,008	46,078	44,020	44,629	46,649	44,041	45,668	542,233
		증감률	△6.2	△11.3	△8.4	△2.1	△9.8	△13.8	△11.1	△14.0	△11.9	△15.0	△14.5	△5.3	△10.4
	2020	금액	43,103	40,912	46,167	36,270	34,855	39,214	42,785	39,469	47,820	44,819	45,752	51,332	512,498
		증감률	△6.6	3.6	△1.8	△25.6	△23.7	△10.9	△7.1	△10.3	7.1	△3.9	3.9	12.4	△5.5
	2021	금액	48,015	44,810	53,828	51,187									197,674
		증감률	11.4	9.5	16.6	41.1									
수입	2019	금액	45,153	36,651	41,992	45,047	43,620	40,105	43,762	42,457	38,741	41,397	40,729	43,687	503,343
		증감률	△1.4	△12.2	△6.5	3.1	△1.9	△10.9	△2.6	△4.3	△5.6	△14.6	△13.0	△0.8	△6.0
	2020	금액	42,718	36,977	41,804	37,933	34,662	35,795	38,849	35,818	39,400	39,094	39,945	44,638	467,633
		증감률	△5.4	0.9	△0.4	△15.8	△20.5	△10.7	△11.2	△15.6	1.7	△5.6	△1.9	2.2	△7.1
	2021	금액	44,253	42,193	49,653	50,799									186,901
		증감률	3.6	14.1	18.8	33.9									
합계	2019	금액	91,322	76,133	88,995	93,828	89,324	84,113	89,840	86,477	83,370	88,046	84,770	89,535	1,045,576
	2020	금액	85,821	77,889	87,971	74,263	69,547	75,009	81,634	75,287	87,220	83,913	85,697	95,970	980,161
	2021	금액	92,268	87,003	103,481	101,986									
무역수지	2019	금액	1,016	2,830	5,011	3,734	2,084	3,904	2,316	1,563	5,888	5,252	3,312	1,981	38,890
	2020	금액	385	3,935	4,363	-1,662	193	3,419	3,936	3,651	8,420	5,725	5,807	6,694	44,865
	2021	금액	3,762	2,616	4,175	388									10,773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4월 현황은 잠정치임(관세청 무역통계 현황)

- 월 월간 수출입 집계(추정치) 결과,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41.1%(149.2억달러) 증가한 512억 달러, 수입은 33.9%(128.7억달러) 증가한 508억 달러로, 무역흑자 4억 달러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흑자임.
- 3월 기준, 주요 수출품목현황 중 반도체(8.3%)·승용차(14.7%)·석유제품(17.4%)·선박(67.3%)·자동차부품(12.1%)·무선통신기기(8.5%)·가전제품(2.4%) 등은 증가, 액정디바이스(△22.8%)는 감소함. 또한 국가별 현황은 중국(26.0%), 미국(9.2%), 유럽연합(36.7%), 베트남(5.4%)등 증가, 일본(△2.6%), 중동(△17.5%) 등 감소
- 3월 기준, 주요 수입품목현황 중 기계류(17.6%)·가스(11.5%)·승용차(18.6%)는 증가, 원유(△1.3%)·무선통신기기(△6.2%)는 감소. 소비재는 25.5% 증가, 원자재는 15.9% 증가, 자본재는 19.4% 증가함. 국가별 현황은 중국(21.5%), 미국(15.7%), 유럽연합(18.1%), 일본(10.8%), 중동(3.2%), 호주(70.9%), 베트남(10.5%) 등 증가.

- 이미,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부터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불황이 진행 중이었고,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심화되었음.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의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등 회복세임.

(2) 전북 통계

(단위: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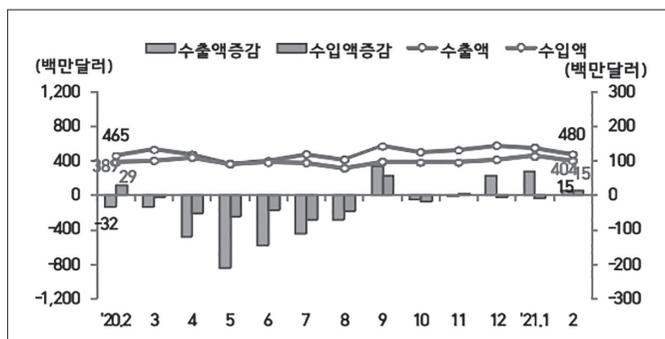
항 목	2018		2019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수 출	629	568	594	496	569	598	580	550	592	491	490	497	531	527
수 입	478	440	474	361	416	500	434	430	457	366	339	403	384	423
합 계	1,107	1,008	1,068	857	985	1,098	1,014	980	1,049	857	829	900	915	950
무역수지	+151	+128	+120	+135	+153	+98	+146	+120	+135	+125	+151	+94	+147	+104

항 목	2020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2
수 출	489	465	538	479	371	406	482	421	575	508	528	584	557	480
전년동월대비	-105	-31	-31	-119	-209	-144	-110	-70	+85	+11	-4	+57	+69	+15
수 입	469	390	411	448	372	386	385	322	395	383	388	419	461	404
전년동월대비	-5	+29	-5	-52	-62	-44	-72	-44	+56	-20	+4	-4	-9	+14
합 계	958	855	949	927	743	792	867	743	970	891	916	1,003	1,018	884
전년동월대비	-110	-2	-36	-171	-271	-188	-182	-114	+141	-9	+1	+53	+60	+29
무역수지	+20	+75	+127	+31	-1	+20	+97	+99	+180	+125	+140	+165	+60	+76
전년동월대비	-100	-60	-26	-67	-147	-100	-38	-26	+29	+31	-7	+61	+40	+1

- 전북지역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20년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변수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님.
- 전북 역시 2018년 11,12월과 비교해 2019년 수출입 현황 통계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위기는 발생되었음.

〈수·출입액(전년 동기대비)〉



## 5. 가계동향

### 1) 소비자심리지수(CCSI<sup>7)</sup>)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북	107.1	100.9	87.5	80.6	87.4	88.5	91.4	95.8	85.5	93.1	99.1	90.1	94.4	95.8	98.4	98.6
전국	104.2	96.9	78.4	70.8	79.7	83.7	85.9	89.7	81.4	92.9	99.0	91.2	95.4	97.4	100.5	102.2

- 2021년 4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8.6으로 전월보다 0.2p 상승.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2.2로 전월에 비해 1.7p 상승.

### 2) 소비자동향지수(CSI<sup>8)</sup>)

- (주요지수) 가계수입전망(94→94), 향후 경기전망(96→96)은 전월과 동일, 소비지출전망(103→101)은 전월보다 하락, 현재 생활형편(86→88), 생활형편 전망(96→97) 및 현재 경기판단(73→74)은 전월보다 상승.
- (여타지수) 금리수준전망(111→108), 가계부채전망(101→100), 주택가격전망(122→118)은 전월보다 하락, 취업기회전망(86→89), 가계저축전망(93→94), 임금수준전망(113→114)은 전월보다 상승.

7) 소비자심리지수(CCSI):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는 17개 개별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선택, 이를 합성하여 작성한 종합지수임. 장기평균치(2003년~2020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의미임.

8) 소비자동향(태도)지수(CSI): 장래의 소비지출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경제상황과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고용, 물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평균해 작성한 이 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서 경기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됨. 지수의 값은 0~200사이에서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크면 그 반대임.

연 월		2019		2020												2021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주요 지수	현재생활형편	96	93	95	93	85	79	80	86	87	89	86	87	91	85	87	87	86	88
	생활형편전망	99	99	99	98	88	86	90	92	92	95	90	93	96	91	94	95	96	97
	가계수입전망	98	99	101	99	90	86	91	90	92	95	88	94	94	90	93	95	94	94
	소비지출전망	109	108	112	105	99	92	96	93	98	100	90	96	101	96	100	99	103	101
	현재경기판단	79	77	83	72	48	40	45	52	57	64	49	62	78	57	60	62	73	74
	향후경기전망	89	89	96	85	70	66	78	77	76	83	72	84	93	82	86	92	96	96
여타 지수	취업기회전망	92	89	94	89	72	66	75	71	73	80	68	77	87	77	79	83	86	89
	금리수준전망	86	90	96	93	77	74	83	79	88	88	85	90	94	93	98	102	111	108
	가계저축전망	98	94	94	95	91	87	89	91	91	94	90	94	95	93	93	93	93	94
	가계부채전망	97	98	98	98	100	99	100	98	102	97	101	98	98	100	99	100	101	100
	주택가격전망	106	116	108	102	104	92	93	105	112	112	108	112	118	125	124	123	122	118
	임금수준전망	118	119	120	117	108	103	106	106	112	113	106	110	110	111	112	111	113	114

## 6. 전북지역 경제력 지수 및 균형발전현황(요약)

원자료 :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한국은행전북본부, 210427)

### 1) 검토배경

- 지역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지역내총생산(GRDP)과 인구측면에서 평가할 때 전북경제는 대체로 낙후된 상황임. 경제성장률(1986-2019)은 연평균 4.2%로 전국(5.7%) 및 8개도(5.2%)보다 낮음

### 2) 경제력 지수

- 경제력 지수는 ① 소득수준, ② 산업발전, ③ 인력기반, ④ 취업여건, ⑤ SOC 및 재정력 등 5개 부문의 15개 지표로 구성
- 2019년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2000년 16개 시도 중 16위, 2010년 15위)

- 부문별로는 취업여건(6.26)을 제외하고 인력기반(5.04), 소득수준(5.10), SOC 및 재정력(5.22), 산업발전(5.38) 모두 평균을 하회

### 3) 부문별 균형발전 현황

#### (1) 소득수준

-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명목 GRDP 기준)은 2019년 51.8조원으로 전국의 2.7%를 차지 (17개 시도 중 12위)
- 전북의 1인당 GRDP는 2019년(잠정) 기준 2,874만 원으로 전국(3,721만 원)의 77% 수준(17개 시도 중 13위)

#### (2) 산업발전

- (산업구조) 건설업(7.9%), 농림어업(7.0%)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반면, 광공업(23.4%), 서비스업(60.0%) 비중은 전국보다 낮음
- (사업체 종사자) 주민등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은 39.6%로 전국(43.8) 대비 낮음(17개 시도 중 15위)
-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비중도 2019년 기준 18.8%로 전국(25.1%)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3위)

#### (3) 인력기반

-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명에서 2020년 18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인구 증가율 (2019년)은 -1.0%로 전국(0.0%) 대비 낮음(17개 시도 중 16위)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68.2%로 전국(72.7%)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6위)이며, 노령화지수는 1.63으로 전국(1.19)에 비해 높았음.

#### (4) 취업여건

-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61.0%로 전국(63.3%) 대비 낮으며(17개 시도 중 15위), 실업률은 2.7%로 전국(3.8%) 대비 양호(17개 시도 중 3위)
- 연령별 고용상황을 보면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청년층 취업여건이 나쁨.

#### (5) SOC 및 재정력

- 도로율과 자동차등록대수 측면에서 평가한 SOC 지표는 전국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양호한 수준
- 재정자립도는 20.4%로 17개 시도 평균(41.6%) 대비 절반 수준.

#### (4) 요약 및 시사점

- 경제력지수 산출 결과 전북은 타 시도 대비 경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
- 과거에 결정된 산업입지는 현재의 산업집적에도 영향을 주며,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생산성 차이보다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에 상당부분 기인함. 그러므로, 산업구조 전환 노력이 필요함.
- 잠재적 성장성을 갖춘 산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의존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유효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양적기반을 마련하여 내부 역량강화와 성장동력 확보.

### 〈 경제력지수 산출 결과, 2019년 〉

시도	경제력지수	종합순위	부문별 지수 <가중치>				
			소득수준	산업발전	인력기반	취업여건	SOC·재정력
			<0.341>	<0.288>	<0.091>	<0.090>	<0.189>
서울	7.35	1	7.87	7.57	6.44	5.17	7.56
부산	5.80	10	5.78	5.84	5.79	4.94	6.18
대구	5.76	13	5.57	5.84	6.00	5.16	6.14
인천	5.85	9	5.47	5.64	6.58	5.53	6.65
광주	6.03	7	6.02	6.09	6.45	5.58	5.96
대전	6.05	6	6.00	6.34	6.37	4.99	6.06
울산	7.03	2	7.88	7.28	6.47	5.13	6.29
세종	5.92	8	5.74	5.07	8.04	6.17	6.42
경기	6.27	4	6.09	6.35	6.85	5.98	6.31
강원	5.43	16	5.53	5.22	5.21	6.34	5.27
충북	6.10	5	5.90	6.53	5.78	7.11	5.49
충남	6.36	3	6.52	6.75	5.56	6.86	5.63
전북	5.30	17	5.10	5.38	5.04	6.26	5.22
전남	5.48	15	5.64	5.20	4.48	7.23	5.28
경북	5.70	14	5.79	5.95	5.04	5.90	5.40
경남	5.79	11	5.58	6.12	5.83	5.84	5.63
제주	5.77	12	5.51	4.84	6.08	7.81	6.52
9개도 평균	5.80		5.74	5.82	5.54	6.59	5.64
수도권 <sup>1)</sup> 평균	6.49		6.48	6.52	6.62	5.56	6.84

## 7. 분석 및 시사점

### 1) 보고서 요약

- 전국적으로, 3월 고용현황은 고용쇼크에서 회복하고 있음. 전년 동월 대비 314천 명이 증가함. 이는 60세 이상의 노인취업자(+408천 명), 지자체 및 공공기관 노인일자리사업(사업개입공공서비스업, +334천 명)의 취업자 증가가 주된 원인임, 주먹구구식 팜질 처방 대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고용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전북지역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40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9세 이하(+19천 명)와 60세 이상(+26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3천 명)과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22천명)이 증가하였음, 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으나, 농도로서의 특징(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과 산업의 후진성과 열악한 고용현실(중소영세 및 자영업 취업자 비율 높음), 통계의 이면(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낮은 실업률),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감춰진 현상일 뿐, 위기의 질은 훨씬 심각함. 『전북 지역의 경제력지수와 균형발전현황 보고서』참조,

- 2020년 3월 기준 전북지역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상용노동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며, 여전히 임시 및 일용노동자 비중이 높음. 특히, 임시직이 인턴 등의 이름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9~10개월의 품수계약이 만연하고 있음.
- 4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직 현재의 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 모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음. 하지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체 모두 경기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하는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전망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전월보다는 증가하였음. 하지만,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떨어짐.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등이 공통으로 지적되었음.
- 수출입 현황에서도 보이듯이, 이미 2019년에도 전년 대비 무역량이 감소하였음. 2020년 4분기부터 회복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향후 코로나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 생산재 및 자본재 수출입 증가 등으로 유추했을 때, 코로나 종식에 따른 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계동향 또한 이후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음. 전월에 비해 긍정답변이 증가하였음. 하지만, 경제의 회복 효과가 아직 민간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음이 드러남. 기업경기조사와 가계동향 모두 전국 평균 수치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율이 낮음. 이는 전북지역의 열악한 현실과 함께 코로나 19 위기에 대해 체감이 더 민감함을 반증함.

## 2) 이후의 대안

- 코로나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야 함. 코로나가 종점에 이르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소비재는 단시간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준비가 필요함. 선진국과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 원자재 및 설

비를 확충하는 등 대비하고 있음. 전국적으로도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전북지역의 고용안정과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 자급자족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공해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추진하되, 대기업 유치는 GM과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보듯이 한계가 있으며, '쿠팡' 등 서비스 업체는 지역에 경제적으로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각종 기업상담 센터 유치 사례 참조)
-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설비(불변자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 반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설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확대되기 어렵고, 생산성이 아니라 착취율에 의존하게 되므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게 됨.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됨.
-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 역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음. 일자리수치에만 연연함. 그러다보니, 단기간, 비정규직 일자리 중심임. 고용정책은 일자리에 사람이 부품처럼 채워지고 교체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이 안정된 노동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함.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지역에 정착하게 됨
- 전북지역의 경우, 공공부문 고용정책과 사회적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하여 청년층과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수용해야 함. 또한,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농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민 감소를 방어하며, 농작물의 다양화와 자급률을 높여야 함.
- 한국은 2019년 기준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63.51%로 2018년(66.08%)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G20국가 중 독일(70.82%) 다음으로 높음. (미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각각 19.34%와 28.08%)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내수시장 확대보다는 무역량(특히, 수출)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세계경제의 '외풍'에 취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됨, 그러므로,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2020년 GDP(1,586,786백만달러) 대비 무역(수출입 합계 980,161백만달러)의 의존도는 61.77%임

**< 참고 자료 >**

- 2021년 3월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시장동향 (고용노동부, 2021. 04.21)
- 2021년 3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4. 30)
- 2021년 3월 전라북도 고용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4. 14)
- 2021년 3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동향(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4. 02)
- 2021년 4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4. 28)
- 2021년 1/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3. 30)
- 2021년 4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4. 29)
- 2021년 2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4. 20)
-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현황(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김진용 과장, 2021. 04. 27)
- 2021년 3월 수출입현황(확정치)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04. 15)
- 2021년 4월 수출입현황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05. 01)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2021. 04. 30)